

국어 사전과 외래어

김 용 권

(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얼마 전 sbs의 심야 토크 쇼에서 있었던 일이다. 슈퍼 모델이라는 20세 안팎의 미녀들과 사회자와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다. 어느 모델에게 뭐라고 물었더니 그 미녀 입에서 “땃기리예요.”라는 말이 나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사회자는 당황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작년에 있었던 일을 생각했다. 어느 지방 도시에서 열린 KBS 1의 전국 노래 자랑 자리에 한 젊은 여성이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래로 유명해진 기성 여가수(30대 초반?)가 마침 그 자리에 나와 있었다. 진행자가 그 여가수더러 노래 솜씨가 어땠었느냐고 물었더니 그 여가수도 “땃기리예요”라고 말했다.

‘땃기리’라는 말은 일본어 ‘てっしり’인데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어떤 일(사람)이 틀림없다(분명하다)고 생각했는데(봤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부정의 뜻이고, 또 하나는 영락없다, 빼다박았다 등의 긍정의 뜻이다. 슈퍼 모델과 여가수가 한 말은 두 번째 뜻이 분명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 국어 사전에는 들어 있지 않고 일한 사전에는 표제어로 나온다.

그래서 두 여성이 한 말을 듣고 궁금했던 것은 그들이 그 말이 일본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상황에 알맞게 쓸 정도로 일본어에 숙달한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아니면 두 사람을 놓고 일반화하기는 무리이겠지만 둘이 연예계 사람들이라고 본다면 그 세계에서는 이 말이 생소한 정도를 넘어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전문 용어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경우라면 이 말이 일본어인지 이태리어인지 우리말인지 구별되지 않을 것이고 구별할 필요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땃기리의 언어상의 지위에 관한 논의는 접어 두고 우리의 언어 생활을 들여다 보면 외래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는 데 새삼 놀라게 된다. 서양어, 특히 영어가 많지만

그 보다는 일본어 단어의 수가 더 많다. 그 중의 상당수는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말 속에 침투한 것이지만 해방 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특히 의식주행(行)의 생활 문화와 대중 매체, 대중 문화의 일본어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기성 세대가 한 시대가 지나간 일본어와 언어 표현에 익숙해 있다면 젊은 세대는 새 시대의 일본어와 언어 습관을 익히고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일본어는 외래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어를 비롯한 서양어의 외래어와는 달리 우리의 국어 사전에는 거의 실리지 않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몇 나라의 국어 사전을 보면 외국어 수용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란서의 경우는 외국어, 특히 영어 단어를 반드시 붙여로 바꿔 놓을 뿐만 아니라 영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영국과 미국은 외국어 원어를 그대로 사전의 표제어로 수록한다. 참고로 미국의 '랜덤하우스 영어 대사전'(1986)과 '랜덤하우스-웹스터 대학 사전'(1991)을 보면, 지명과 인명을 제외한 일본어 단어가 150개 가까이 실려 있다. 이 단어들은 몇 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명사이고, 몇 개의 예외 말고는 모두 일본식 로마자 표기법대로 표기되어 있다. 중국에서는 외국어 단어와 소리가 비슷한 단어로 표기하거나(coca cola: 可口可樂, pepsi cola: 百事可樂) 원어의 뜻을 송두리째 중국어로 번역한다(computer center: 電腦中心). 일본에서는 외국어를 가타카나 문자로 발음을 옮기거나(gag: ギャグ), 일본어(특히 한자)로 번역한다(civilian government: 文民政府, trial and error: 試行錯誤). 원어가 길다 싶으면 일부는 줄여 버린다(テレビ: televi(sion)). 그리고 일본어와 합성시키기도 한다(가라오케: 空ろオケ(occhestra)).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원어를 변형하거나 다른 원어를 가지고 일본식 외국어, 특히 일본식 영어를 만들어 낸다. 하이 틴(ハイ ティーン: high teen)은 영어의 the late teens를, 로우 틴(low teen)은 the early teens를 변조한 것이고 백 미러 back mirror는 rear-view mirror를 변조한 것이다. 또 우리의 연예인들이 자주 쓰고 있는 CF나 CM이니 하는 약자는 영어의 커머셜(commercial(s))에 일본 사람이 film, message라는 말을 붙여서 다시 첫 글자만 다서 CF, CM으로 만든 것이다. 영어 사전에는 CF라는 약자가 들어 있지 않고 C. F.라면 영국서 종군 목사(Chaplain to the Forces)밖에 없다. 소문자 cf.는 비교(할 것)라는 라틴어(confer)의 약자이다. CM이라는 약자도 영어 사전에는 없고, C. M.이라면 공동 시장(Common Market) 등 몇 가지 어구의 약자가 되지만 Commercial message라는 말은 없다. 또 우리의 기성 세대가 가끔 사용하는 '머리가 회긋회긋한 중년'이라는 로맨스 그레이(romance grey)는 영어를 불란서 어순으로 고쳐 놓은 일본 사람들의 완전한 창작이다. 그리고 영어에는 들어 있지 않은 뜻을 집어 넣은 일본식 영어도 있다. 커닝(カンニング:cunning)

이 대표적인 예다. 이 말이 중세 영어에 나타났을 때는 학식, 박식 등의 뜻도 있었는데 현대로 내려오면서 교활, 영악(명사)과 간사하다, 약삭빠르다(형용사)를 뜻하게 되었다. 미국 구어에서는 깜찍하다는 뜻도 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이 말에 ‘학생이 시험 때 감독자의 눈을 속이는 부정 행위’(岩波 國語辭典)라는 누명을 씌워 놓았다. 2차 대전이 시작되기 훨씬 전의 일이다. 시험 부정 행위를 뜻하는 진짜 영어로는 cheating이 있는데 어째서 ‘생사람을 잡았는지’ 모른다. 물론 시험 부정 행위의 뜻의 cunning은 일본의 국어 사전에만 나오고 영화(일) 사전의 표제어 cunning의 뜻풀이에는 들어 있지 않다. 그러나 영화 사전의 cheating의 뜻풀이는 ‘시험에서 컨닝을 하다’(試験でカンニングをする)라고 되어 있으니(研究社:新英和大辭典) 이만저만한 아이러니가 아니다.

일본의 국어 사전과 영화 사전의 이 기묘한 관행은 우리 국어 사전과 영한 사전 안에 고스란히 옮겨져 있다. 어쨌든 일본어 사전에서는 자기들이 만든 말에는 그런 사실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영한 사전은 영국과 미국의 영영 사전과 일본의 영화 사전을 토대로 해서 만들고 있다고 하나 실제로는 영화 사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되도록 영어 단어를 우리말 한자로 번역하지만, 발음을 한글로 옮기는 경우도 있다. 외국어를 옮길 때 일본에서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의 두 벌의 문자 중에서 가타카나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외래어라든가 조어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한글은 한 가지 뿐이므로 외래어와 우리말과의 구별은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 국어 사전은 어휘 선정과 뜻풀이 같은 것을 보면 일본어 사전을 많이 참고하고 있는 것 같다. 아니 참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본어 사전의 뜻풀이를 어순 그대로 한 자도 바꾸지 않고 번역해 놓은 것도 많다. 지금 우리의 영한 사전은 대사전과 중사전을 합치면 10종이 넘는데 모두에 공통된 특징은 영미의 영영 사전 속에 외래어로 들어 있는 일본어를 거의 실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에서 ‘랜덤하우스’ 대사전에 일본어 단어가 150개 가까이 들어 있다고 말했는데, 이 사전을 번역한 ‘시사 랜덤하우스 영한 대사전’(시사영어사)에는 반의 반도 들어 있지 않다. 다른 사전의 경우는 말 할 것도 없다. 그래서 예컨대 도쿠카와 시대 일본을 무대로 한 제임스 클라벨의 소설 Shogun(將軍)에 빈번히 나오는 Ninja(忍者), 그리고 일요일 아침 sbs에서 방영하던 닌자 거북이 시리즈의 닌자(Ninja)는 우리의 어떤 영한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다. ‘랜덤하우스 영어 대사전’이나 ‘랜덤하우스·웹스터 대학 사전’에는 들어 있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이런 사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영한 사전에서는 영어 말고도 다른 서양어까지 끌어다 넣으면서 일본어는 왜

했을까? 몇 개 들어 있는 일본어는 왜 들어가 있을까? 직접 간접으로 알아 본 바로는 일정한 원칙이 없다는 것이다. 외래어라고 하나 원래는 일본어이니까 영한 사전에서 뺐다는 것이고 아주 빼 버리면 심심할 테니 몇 개는 남겨 두었다는 것이다.

우리 국어 사전에도 낱자는 보이지 않는다. 랜덤하우스 대사전의 150개 단어는 주로 일본의 의식주행, 문물 제도에 관한 말들이고 추상 명사는 거의 없다. 그 중의 상당수는 해방 전에도, 후에도 우리 사회에서 쓰이고 있는 말들이다. 사전에 따라서는 다타미, 우동, 스시, 모치 등을 실고 있다(뉴 에이스 국어 중사전). 그러나 신문 사설과 시론에서 자주 나오는 사무라이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표제어로 나오는 것이라도 우리 말로 표기되어 있다. 예컨대 올림픽 경기 종목인 judo는 '유도'로 나와 있고 '일본(日本) 고유의 무술임. 유술'이라는 풀이가 붙어 있다. 그러니까 judo의 일본어 발음 '쥬도'가 아니고 우리말 발음 유도를 먼저 알고 있어야 이 국어 사전에서 그 말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일본어-한국어 사전(뉴 에이스 일한 중사전)에서 Ninja나 judo를 찾으려면 にんじや, じゅうどう의 히라가나 문자를 먼저 알고 있어야 그것을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우리 국어 사전은 서양어, 특히 영어를 지나칠 정도로 많이 실고 있다. 일본어 사전에 비해서도 더 많아 보인다. 영국이나 미국의 중급 사전에서도 볼 수 없는 전문 용어나 학술 용어까지 들어 있다. 또 석유 에테르(石油 ether), 아세트산(acet 酸) 같은 국어·영어 합성어까지 표제어로 실고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합치면 영어 외래어의 수는 대단할 것이다.

영어 외래어 수에 비하여 일본어 단어 수가 극소수에 불과한 것은 일본어가 덜 알려져 있거나 덜 쓰이고 있기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본다. 그 이유는 명료하다. 일본어는 단순히 하나의 외국어가 아니고 지난 날 우리 강토를 강점한 침략자의 국어이고 식민지에서 강요된 지배 통치 언어였기 때문이다. 해방과 더불어 국권을 되찾고 모든 면에서 일제의 잔재를 없애기 위한 정화 운동이 일어났고 국어 순화 운동도 그것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우리 국어를 지키고 순화하는 데 프랑스 국민들처럼 철저하지는 못 하였다. 외국어 사전과 국어 사전에서 일본어를 제외했지만, 그것으로 일본어가 이 땅에서 없어지지는 않았다. 사전에는 보이지 않아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고, 거리의 여기저기에 한글로, 영어로 최근에는 일어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면 선택적으로라도 국어 사전 속에 수용하여, 그것이 일본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무슨 뜻이고, 우리말로로는 무엇에 해당하는지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행 국어 사전들은 일본어의 수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식 영어나 조어는 경쟁적으로 실는 옷지 못할 작태를 보여 준다. 일본식 영어는 앞에서 말한

대로 일본 안에서만 통하고, 그것도 일본 국어 사전에만 실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도 일본어인데 진짜 일본어는 신지 않으면서 엉터리 일본어는 왜 신는 것인가? 올드 미스라는 말이 있다. 이 낱익은 말은 사전에 이렇게 실려 있다. 올드-미스(old + miss) 圖 노처녀(老處女) 「일본식 조어」(동아 새국어 사전). 일러두기에는 “외래어의 조어는 그 구성을 보이고, 풀이 끝에 조어임을 명기하였다”라는 설명이 나온다. 올드 미스는 분명히 일본식 조어이지만 영어로 만든 것이니까 영어인 듯한 인상을 준다. 외국 여성한테 이 말을 써 보라.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기다릴 것도 없다. 한 마디로 국어 사전은 일본식 영어를 잔뜩 실어 놓고 우리의 언어 생활과 언어 교육에 혼란과 지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아무래도 커닝(cunning)을 다시 한 번 끌어내야겠다.

요즘 각급 학교에서 시험 부정 행위가 극심하다는 보도이다. 동아일보 횡설수설(6월 12일. 토)은 커닝 행위, 커닝 가림판, 커닝 亡國論 등 커닝을 15회나 되풀이하여 쓰고 있다. 같은 신문 7월 16일자 2면에는 부정 행위인 커닝이 언급되어 있다. 또 7월 17일(토)자 사설(亡國의 커닝 행위 엄단해야)은 고교에서의 커닝, 협박 커닝을 질타하고 있다. 국어 사전에 의하면 커닝 자체가 시험 부정 행위를 뜻하니까 ‘커닝 행위’를 풀어 쓰면 ‘부정 행위 행위’가 된다. 경향신문 貞洞 칼럼(8월 1일. 일)의 논제는 ‘커닝에 시달리는 사회’인데 커닝 페이퍼, 커닝 습관 해결 등 커닝이 무려 25회나 되풀이되고 있다. 어떤 ‘국어’ 사전을 찾아 보았더니 수험생이 시험관의 눈을 속이는 부정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8월 5일 KBS I의 심야 토크 쇼에 출연한 모 전 문교 장관은 중학교 시절에 커닝을 했다고 4회나 되풀이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부정 행위이다. 글쓴 분이나 말썬한 분이 정말 커닝이 시험 부정 행위라고만 알고 있는 것일까. 일본어 사전에서도, 그리고 우리 국어 사전에서도 그렇게 풀이하고 있으니 난감하게 되었다. 사전이 바로 잡아야 할 일이 한 둘이 아니다.

* 2년 전인가 어느 TV 방송의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뱃기리’로 말장난을 부렸다는 것을 이 글을 쓰고 난 후에 들었다.